

민중의 삶과 밀착된 역사를

문화사·생활사에 대한 관심 증대

이기동 · 동국대 사학과 교수

지난해 한국사 연구동향을 되돌아보면 그 이전 시기와 비교해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한국사 분야에서는 1996년경부터 매년 1천 편에 달하는 논문과 저서가 생산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이를 조금 웃돈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근래 인문학의 위기로 불려지는 추세 속에서도 한국사 분야에서만은 학계의 연구의욕이 아직 식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새로운 연구자들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영·정조 시대 연구성과 많아

최근의 연구경향을 지적한다면, 종전의 정치사·제도사에 대한 비중이 다소간 약화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문화사·생활사에 대한 관심이 뚜렷 증대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단순히 개별사실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그같은 사실이 함축하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천착하는 데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를테면 정치사 부문에서 각 시기 지배세력의 성격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같은 노력의 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사 부문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조선 후기, 특히 18세기 영정조(英正朝) 시대였는데, 이 시기 군주들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같은 관점은 단명했던 대한제국 시기의 고종황제에게도 적용되는데, 다만 관심의 대상은 재정개혁이나 상업변동 등 경제분야에 쏠려 있는 실정이다.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소위 수정주의 사

관의 영향 아래 정치학·경제학 등 주로 사회과학 계통의 인사들에 의해 해방 이후 한국전쟁 시기까지의 현대사 연구가 활기를 띠었고, 마침 지난해에는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학술행사가 열리기까지 했다. 비록 1990년을 전

후해 사회주의 국가들이 일제히 몰락함에 따라서 수정주의 사관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지난해 최장집 교수의 역사관을 둘러싸고 빚어진 논쟁을 보면 현대사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는 현대사 연구에 대한 연구기반을 확실히 다져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점에서 연세대 부설 현대한국학연구소가 지난해 첫 기획사업으로 이화장(梨花莊) 소장 이승만 문서(국문·국한문 및 한문) 18책을 정리, 발간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업적이다.

최근의 한국사 연구상황을 지난 시기와 비교하면 전반적인 수준은 매우 높아졌고, 견해는 보다 세련되었으며, 관점 또한 적잖게 다양해졌다. 한편으로는 지난 시기에 기록해놓은 어떤 정점에서 오히려 저하한 일

최근 한국사 연구상황을 보면 전반적인 수준은 매우 높아졌고, 견해는 보다 세련되었으며, 관점 또한 적잖게 다양해졌다. 한편으로는 거대담론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와 밀착된 역사의 대중화가 올해 역사학계의 과제다.

면이 없지도 않다는 느낌이다. 역사의 연구 및 서술에는 풍부함과 동시에 견고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인격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데, 현재 적잖은 연구자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오로지 역사의 민중현상에 대한 과잉의식이 더욱이 과거의 사실을 차분하게 이해하려 하기보다도 성급하게 재단해보려는 재판관의 의식이다. 심지어 일부 연구자들은 저항하는 민중만이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매우 편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일상생활에서 민중의 '창조성'이라는 것을 놓쳐버릴 우려가 있으며 역사의 정론화(政論化)는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종래 우리 학계가 자명한 진리라고 확신하면서 온 힘을 기울여 만들어낸 일부 역사상(歷史像)에 대한 재검토작업이 긴요하다. 이를테면 조선 후기 이해의 기본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는 소위 '내재적(內在的) 발전론'도 그것이 초래한 엄청난 학문적 성과를 충분히 인정할 경우에도 현단계에서 한번쯤 차분하게 반성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사실 한국사의 내부적

발전논리를 지나치리만큼 당당한 자세로 표명한 이런 역사인식에는 근본적인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연구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터다.

역사지식의 대중화가 절실한 과제

끝으로, 현재 한국사학계에 부과된 절실한 실천과제는 역사지식의 '대중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실증사학의 깃발 아래 엄격성과 고답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오로지 아카데미즘의 추구에 집착해온 우리 역사학계는 단기간 내에 눈부신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때문에 시민대중의 역사학에 대한 무관심을 초래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렇게 되어서는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한다는 역사학의 존립근거가 실종될 우려마저 있다.

시민사회와 밀착된 역사학 구축방안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민중의 사회적 삶에 대한 생활사적·환경사적 접근을 도외시하고는 대중 속으로 파고들 수 없다는 데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듯하다. 요컨대, 이제 는 더이상 국가권력이나 민족문화와 같은 거대담론으로써는 접근이 어렵다는 인식이 다. 역사의 대중화가 반드시 전문성의 심화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한국사학계는 올해부터라도 이 과제를 목표로 해 다양한 전술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謹賀新年〉

지난 한해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번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999년 새해 아침

(사)한국번역가협회 이 사 장 허만일
상임이사 류근주
회 장

〈謹賀新年〉

새해에도 양서보급을 통해
이 땅의 책문화를 꽃피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99년 새해 아침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 장 이창연
사무국장 김윤석

〈謹賀新年〉

새해에도
양질의 교과서로
교육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1999년 새해 아침

한국2종교과서협회 이 사 장 鄭亨鎭